

법당이야 교실이야? “불교 재미있네요”

서울 덕산중 불교반 은평법당에서 격주 특활수업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지혜와 사랑이요!”
“자비와 사랑 아니냐?”
효장 스님의 질문에 아이들이 나름대로 지난 시간의 기억을 더듬으며 답을 한다. 이때 “지혜와 자비요!”라고 정답을 말한 3학년 제석이가 스님에게 과자를 받았다.

6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은평구 흥은동에 위치한 금강사 은평법당(주지 효장)이 덕산중학교 불교반 ‘야단법석’ (지도교사 유재숙)의 특별활동실로 변했다. 학기가 시작된 이후 일곱번째로 법당에서 열린 특별활동 수업은 학생들이 즐기면서 불교를 배우는 기회.

이날 특별활동 수업은 부처님께 심배를 올리고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지도법사는 지난 2월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효장 스님, 스님은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격주로 찾아오는 야단법석 지도를 위해 밤을 지새 날이 부지기수. 그래도 아이들만 보면 힘이 난다고 한다. 교리복습에 이어 수화도 다시 해본다.

찬불가 ‘이 작은 등불 하나’에 맞춘 손짓 하나 하나에 정성과 즐거움이 묻어난다.
야단법석 부회장인 3학년 선민이는 “처음에는 지루할 줄 알았는데 연등을 만들고 수화도 배우면서 즐겁게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교리 강좌. 99명을 살해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앙굴리마라 이야기에 아이들이 귀를 쫓긋 세운다. 앙굴리마라가 사람을 죽이게 된 이유와 부처님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부처님을 통해 참회하고 불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듣는 표정이 진지하기만 하다.
강의 중간 중간에 계속되는 퀴즈와 과자를 받기 위한 아이들의 고군분투(?)는 수업의 윗줄이다.
올해 처음 생긴 불교반이지만 57명 지원자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27명에게에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의지는 대단하다.
유재숙 선생님은 “4년 전부터 은평법당과 인연을 맺은 것이 계기가 돼 아이들 수업을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호

장 스님 덕분에 이렇게 알찬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신자인 3학년 재원이는 “야단법석이라는 명칭이 재미있어서 불교반에 지원했다”며 “불교에는 어려운 한문만 있고 재미도 없을 줄 알았는데 효장 스님께 배우는 것들은 다 신나는 것들 뿐”이라고 말한다. 이렇다보니 어느새 재원이는 집전을 담당하는 야단법석의 ‘목탁 지존’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법당에서 마음껏 배우면서 늘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효장 스님은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반영해 수화, 한문, 악기 연주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재밌어 하는 것 같다”고 귀띔한다. 그러면 서도 스님은 “종단이 보조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나 사찰에 배포하면 스님들이 더 열심히 포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글· 사진·유철주 기자



덕산중 불교반 ‘야단법석’이 6월 15일 은평법당에서 수화를 배우고 있다.

“침해 역사에 깊은 참회”

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공식 사과’

6월 14일 한일불교교류대회서

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宮林昭彦) 스님이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일본 불교계 참가자 81명을 비롯 총 300여명의 한일불교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미야바야시 쇼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일본과 한국의 1500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시기의 불행한 역사관에 의해 단절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 불교대표의 사과는 한국 침략 과거사에 대해 일본 불교계가 교류를 시작한 지 30년만에 공식적으로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 불교계는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입장표명을 회피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 불교계는 일본 불교계의 입장표명 없이는 대화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본불교계의 사과 입장 발표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차원에서 어렵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일본의 침략을 사과하는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수덕사·고영배 기자

“일본이 과거 귀국을 침해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과 참회의 마음과 함께 다시 불미한 일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을 맹세한다.”
6월 14일 예산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열린 제2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평화기원법회에서 일한불교

상처·좌절·스트레스... 마곡사 가서 녹이자

마곡사·本社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공동주최

조계종 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진각)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좌절을 부처님의 자비 속에 명상으로 녹여버리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나, 너, 우리 함께’를 개최한다.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삶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에게 치유와 희망, 사랑을 남기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근후 박사 등 전문가의 강의와 ‘나는 존귀한 사람’ 코너의 부처님 되기 체험, 새벽술집 경기 명상, 참회 108배 등 내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7월부터 확대되는 주5일근무제에 발맞춰 진행되는 마곡사 템플스테이는 △치유명상-몸과 마음의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한 시간(7월 1-3일) △새 출발을 위한 템플스테이-이혼경험자들의 새 출발을 위한 시간(7월 8-10일) △참회명상-낙태(유산)경험 등 마음의 슬픔을 털어 놓는 시간(7월 15-17일) △가족명상-가족의 화목과 화합을 위한 시간(7월 22-24일) △사랑 나눔-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시간(7월 27-28일) △어린이명상-이 나라의 희망, 어린이를 위한 시간(7월 29-31일) △부부명상-배우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시간(8월 5-7일) △희망나눔-장애우 가정을 위한 시간(8월 12-14일) △지혜나눔-60대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시간(8월 26-28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템플스테이-세상을 향해 우뚝 설 젊은이(20대 취업대기자를 위한 시간(9월 2-4일)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041)841-6226 www.magoksa.or.kr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060-700-1080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다피아, 수행·복지·신행 전문가 상담코너 개설

불자들이 직접 접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지 않고서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 불교포털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 불자들을 위한 상담코너가 마련됐다.
6월 20일 문을 연 부다피아 상담코너는 수행, 신행,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불자들의 고민이나 평소 궁금해 하던 점을 해소하는 카운슬러 역할을 하게 된다.
▲**선(禪)수행 분야**는 제법선원에서 오랜 실장과 참선 지도를 겸해 온 스님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수행자들의 공부 경계를 지도점검 해 주는 ‘사이버 선방’으로 운영된다. 현웅 스님(서울 육조사 선원장)과 운거 스님(지리산 선림원 원장)이 직접 불자들이 수행과정에서 겪은 장애와 의

문점을 풀어준다.
▲**복지·신행분야**의 복지정보 상담은 ‘나눔마을’ 박광호 이사가, 불교복지 및 노인문제 상담은 강지연 마곡사 사회복지부 팀장, 불교신행 및 자원봉사 상담은 이남숙 조계종 포교사가 각각 맡아 보살행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 제공
부다피아, 25일 무료교육
현대불교미디어센터(HBMC) 부다피아에서는 6월 25일 오후 2-5시 서울 중구구 청운동 본사 2층 사무실에서 제 1차 불교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대상 무료 홈페이지 제공 교육을 실시한다. 무료 홈페이지 제작을 원하는 단체들은 전화로 신청 접수한 후 소정의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02)2004-8255

‘할’

말 같하고 많이 안아있고
사리 많으면 도인이나?
헛헛 할마만큼 자기를 아는 것이...
그림·조태호
해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마하몰 추천 우수상품 특별기획전

신문지면광고를 통한 전화주문 고객에 한하여 아래 특판가격으로 드립니다.

심경(心經)

“반야심경” “심오정구대리니”, “금강경찬” 불경을 합창리듬에 기타소리를 접목시킨 앨범.
30년 동안 음반제작자 겸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불교음악을 보급해온 안치행씨가 제작하였고 시인 김하리씨가 불경의 내용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 낭송을 하였습니니다.

1set : 1. 배우기 쉬운 합창 불경 2. 의미 있는 노래
2set : 3. 김하리 시인의 불경낭송 4. 음나나 반예음, 관세음보살
3set : 5. 불자가요메들리 1 6. 불자가요메들리 2

1. 반야심경 2. 신오정구대리니 3. 금강경찬 4. 음나나반예음
1. 반야심경 2. 신오정구대리니 3. 금강경찬 4. 음나나반예음
1. 반야심경 2. 신오정구대리니 3. 금강경찬 4. 음나나반예음

1. 수리수리 (미안수리 수수리 사바하) 2. 음나나반예음 3. 부처님 오셨다 4. 안연 5. 오계 6. 니르반해 7. 음나나반예음

1. 연등축제 2. 마음은 다스리는 글 3. 무심 4. 보살상대본 5. 무상계 6. 마음의 등불 7. 회심곡 8. 아재이제 바라어라 9. 생사원회 10. 에이아나

1. 관허리 시인의 불경낭송 시낭송 2. 관세음보살 - 작곡·안치행 2. 관세음보살 - 작곡·안치행

1. 반야심경 2. 나무관세음보살 3. 관세음보살 4. 연등 5. 오계 6. 음나나반예음 7. 불자 8. 불공공양 9. 관세음보살 10. 회자정리 11. 관공라 12. 음나나반예음 13. 한번만 웃어봐요 14. 관세음보살

· 2CD(1set) : 20,000원 · 2MC(1set) : 10,000원 · 플세트(6CD,6MC) : 75,000원

반야심경 고급손목시계

불자님을 위해 스위스 롱다 최고급무브먼트를 사용하여 만든 반야심경손목시계 쿼크 13피스와 6시와 12시를 제외한 시간대만 ‘마하마하마하’ 글자를 새겨 견고함과 품격을 더한 고급손목시계

라온드브라운 (TCW100-1) 라온드블랙 (TCW100-2) 이크브라운 (TCW101-1) 이크블랙 (TCW101-2) 77,000원

동자캐릭터 손목시계

남녀노소 누구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고급 무브먼트를 사용한 패션 손목시계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의 시계줄과 동자캐릭터가 새겨져 있습니다

1. 캐시미어 2. 케스팅케이스 3. 프린트 4. 3기압 방수

19,800원

음이온 석재다보탑 398,000원 → 300,000원

‘음이온’이 발산하며 ‘아광’으로 신비로운 불자 다보탑 석재 모형(1·3·30)

1) 재질 : 자연 대리석 (90%), 아령석 (8%), 음이온분말 (2%)
2) 특징 : 본 제품은 우리나라 국보 제20호인 ‘다보탑’을 석재로 조각한 기계가공하여 만든 국내 유일의 ‘소형석재다보탑’이며 다보탑 실체크기의 1/45로 축소 제작되었고 일방적인 모형 다보탑(크리스탈 및 종이재질)과는 달리 섬세한 조각기술과 기계가공으로 예술로서의 소용돌이치는 돌의 실재 인테리어나 소용돌이치는 돌의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또한 ‘탑’을 중심으로 자연발산하는 ‘기’와 ‘음이온’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아광기능이 있어 아간에는 녹색아광을 발산하여 실내분위기 온화하게 연출합니다.

3) 제품사양 : 제품 규격 - 22 x 22 x 31cm · 제품 무게 - 3kg
4) 포장사양 : 포장 재질 - 오프닝 타입 · 포장 규격 - 사각박스 (40 x 27cm)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9218~9
Mahamall.co.kr 02-732-1520